

월간

작은도서관

Small Library



12

2007 Vol. 03 DECEMBER

이슈와 화제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개관식 **주제 칼럼**
 "내가 논술학원의 등록을 포기한 이유"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장 **묵향 가득 초대석**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도
 정일 대표 **기획특집** 2006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평가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때론 가족이 어우러져
함께 소통하며
세상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개관식,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말 중에서



Small Library
VISION 2020



CONTENTS

- 04 이슈와 화제** _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개관식 | "외딴 섬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생겼어요!" 10 **작은도서관 뉴스** _ 신안군, 작은도서관 2010년까지 12개 소 건립 | 네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작은도서관 짓는다 | 물오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운동', 12월 워크숍 열어 | 시흥시, 작은도서관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
- 12 주제칼럼** _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14 목향 가득 초대석** _ 도정일 대표 |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18 기획특집** _ 2006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평가 **22 우리 동네 사람들** _ 부산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 **26 사례로 보는 작은도서관 운영** _ 인천시 늘푸른어린이도서관 **28 알기 쉬운 작은도서관** _ 자원봉사 인력 어떻게 활성화시키나? **30 정책정보** _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의 작은도서관 교류활성화정책 **31 발언대**

2007 12 <http://www.nl.go.kr/sml>

발행인 권경상 |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담당 김희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번포로 664 | 발행일 2007년 12월 13일 (3호) | ISSN 1976-4502 | 편집·인쇄 (주)자성기획인쇄(02-2285-2863) | 편집장 정양순 | 출력 디텍

Cover Story

조용한 섬마을 증도에 작은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를 꿈꾸지 않고도 이곳에서 꿈과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외판섬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생겼어요』

지난 11월 28일 전남과도관외판섬마을의 외판섬 증도에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이 구립증도도서관, MBC방송국과 UNWTO STEP 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갖기 캠페인의 시범사업으로서 조성된 것이다. 이는 2023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증도지역의 문화향진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의 첫 번째 도서관인 증도의 현장을 가보자.

취재 박은동 기자 사진 윤혜림 기자



농협은행 2층을 리모델링한 증도 작은도서관 전경





국립이력지자 영부인과 학생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조용한 섬마을, 증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서울에서 가려면 목포까지 몇 시간을 내려간 뒤 다시 뱃길을 이용해 들어 가야만 겨우 다다를 수 있는 외딴 섬마을. 갯벌에 들락달락거리는 검푸른 바닷물, 한없이 펼쳐진 하늘에 구름과 바닷새만 오가던 증도. 이 조용한 섬마을이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고즈넉한 자연만이 가득했던 섬마을에 육지에서 수많은 손님들이 모여들고 농협 마트 앞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방송국 사람들, 관공서 사람들, 잡지사 기자들, 팽과리 소리까지 귀한 손님을 기다리느라 흥겨운 모습이다.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이야?”

소식이 느린 지역주민 몇몇은 어리둥절해 했다. 그러나 소식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 주었다.

“몰랐어? 오늘 우리 마을 작은도서관이 문을 여는 날이잖아.”

“작은도서관?”

어쩐지 얼마전부터 조용한 마을 한귀퉁이에서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일하는 사람으로 한동안 부산스러웠다. 외지 사람들이 섬마을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눈에 띄고 농협은행 2층에서는 어린이들이 모여 성우 선생님과 구연동화 연습을 하느라 바빴다. 학교선생님, 학생들, 지역 주민들에게 초대장이 한 장 두 장 배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월 28일 오늘에 이르러 큰 잔치라도 열린 듯 떠들썩한 축제의 한마당이 벌어졌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작은도서관이 드디어 문을 여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1호가 우리 마을에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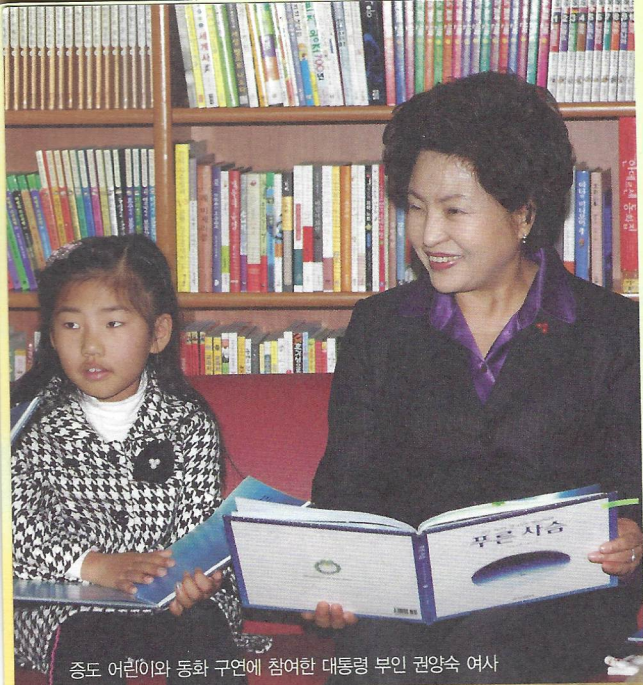
증도 작은도서관은 50평 규모의 아담한 구조로 농협은행의 2층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입구에는 북카페가 있어서 바람을 쐬며 책도 읽고 환담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 도서 3,000여 권이 구비되었으며(UNWTO ST-EP 재단 1,400권, 국민은행 1,000권 기증), 신안군과 전라남도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농협 등에서 자금을 지원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주변에 흠뻑 젖어서 개관식 시작을 기다리던 지역 주민들은 현판 제막이 시작되자 가운데로 모여 들었다. 때 맞춰 행사장에 도착한 영부인 권양숙 여사도 현판 제막에 참여하였다. 아이들과 영부인, 신안군수 등이 줄을 잡아 당기자 현수막에 가려져 있던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모두가 ‘와야’ 하고 기쁨과 축하의 박수를 쳤다. 정식으로 증도 작은도서관이 세상에 첫선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작은도서관 내부에는 아기자기한 서가 속에 책들이 빼곡하고 쿠션과 매트리스로 어린이들이 눕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에 햇살이 가득차 있다. 뿐만 아니라, 영부인이 기증한 PDP 대형 텔레비전에도가 난생 처음 보는 대형 프로젝터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다.

한편 영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구연동화 시연을 해보였다.

“푸른 사슴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야. 푸른색은 사랑과 평화, 마음의 평온을 주는 빛깔이라고, 푸른 하늘, 푸른 바다를 잊지 말라고.”



중도 어린이와 동화 구연에 참여한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예약



신안군수 박우량

영부인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읽으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요즘, 작은도서관이 마을 가까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확신한다. 더구나 주 5일제가 점차 확대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에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다. 아이 따로 어른 따로가 아니라 아이와 어른이 함께 또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다.”라고 영부인은 행사장에서 강조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 작은도서관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개관식을 마치고 오찬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행사에 참여한 귀빈들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권양숙 여사는 “다음 정부의 영부 인께서도 작은도서관을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면서 “작은도서관 을 짓는 일은 정부나 지자체가 앞서서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작은도서관을 키 워나가는 것은 지역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흠어진 책 한 권이라도 정 리해 주시고 창문이라도 닫아주시며 손길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렇게 개관식을 보고 떠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도시 만을 꿈꾸지 않고 작은도서관에서 건전하고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사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우리 마을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MBC 창사특집 특별생방송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끝난 다음에도 증도는 한동안 북적거렸다. 11월 30일 MBC 방송국 에서 창사특집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특별 생방송을 마련했기 때문이 다. 증도는 또 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 마을의 풍경과 지역 주민들의 차지 가 된 작은도서관의 모습을 전국에 뽐내었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김성화 팀장이 패널로 출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MBC 방송국에 감사한다.”면서 “작은도서관은 우선 지역 주민 의 요청에 따라 건립을 검토하게 되지만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일 환으로 진행되는 경우 후원기업의 요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80분간 진행된 생방송은 작은도서관의 의미에서부터 증도 작은도서관 현장 연결, 작은도서관의 특징,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소개, 가나의 작 은도서관 지원, 디지털로 진화하는 작은도서관의 비전 등을 두루 소개하여 많 은 사람들에게 작은도서관을 알릴 수 있었다.

증도 작은도서관 개관을 시발로 더욱 본격화될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 인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여 지식정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리려

는 목적을 가진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에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작은도서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MBC 특별 생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아이들의 함성처럼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많이 많이 지어주세요!”라는 우리들의 바람이 결실로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미니인터뷰

신안군수 박우량 “문화 소외 지역에 새로운 등불, 작은도서관!”

몇 년 전만 해도 뱃길도 없어서 소외되어 있던 이 섬마을에 뱃길이 열려 육지와 이어지게 되더니 오늘 작은도서관까지 생겨 문을 열었습니다. 기쁜 마음이 한량 없습니다. 그동안 문화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작은도서관이 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전해줄 것이며 섬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안군수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중도 작은도서관 명예관장 김문수 “지역 주민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중도 작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신안군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곳입니다. 도서관도 기증 받았고 앞으로의 운영도 자원봉사자 위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전문사서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군립도서관, 새마을문고, 종교인, 퇴직공무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중도중학교 1학년 이다래, 김혜린 “이제 목포까지 나가지 않고도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중도에서는 한번 도서관에 가려면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가야 했죠. 근데 이제 마을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작은도서관이요. 여기서서는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요. 영부인이 기증한 대형 텔레비전으로 재미있는 만화도 볼 수 있고요, 피곤하면 낮잠도 잘 수 있게 쿠션과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여기에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을 거예요.

지역 주민, 70세 이명석 “작은도서관이 노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에게 하루가 얼마나 무료합니까. 도서관에 안 가본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어떤 이들은 모여서 화투나 치고 하는데 이제 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생겼으니 가서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고 풍요롭게 가꿔 나갈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바로 작은도서관이 되줄 것 같습니다.

중도초등학교 교장 김우진 “학교도서관이 하기 힘든 일, 작은도서관에게 기대!”

얼마전에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성인용 도서도 갖추는 등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대로 활성화되는 동시에 작은도서관 역시 마을 주민들에게 아주 알찬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성인까지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심점이 되어 주리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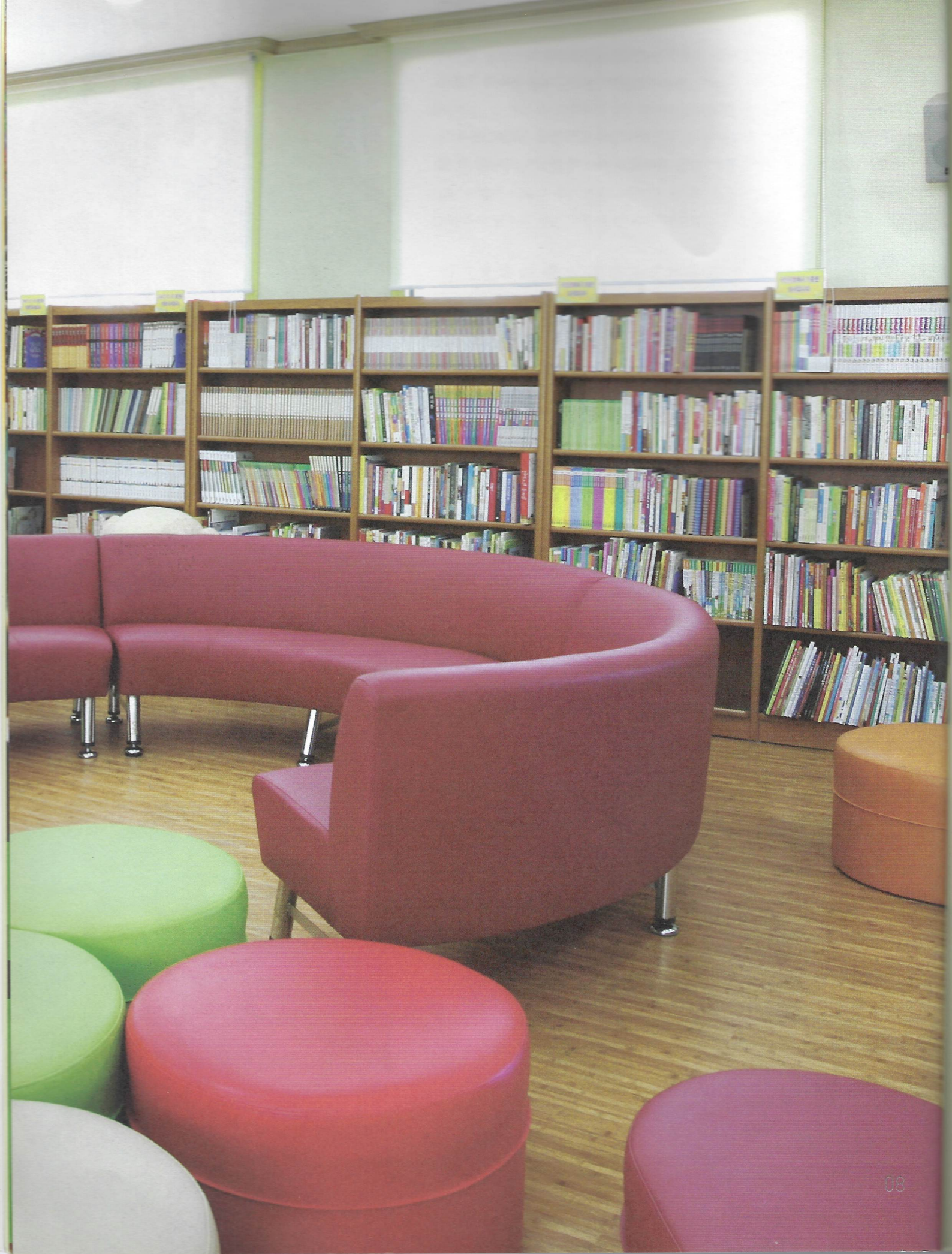
중도중학교 1학년 이다래, 김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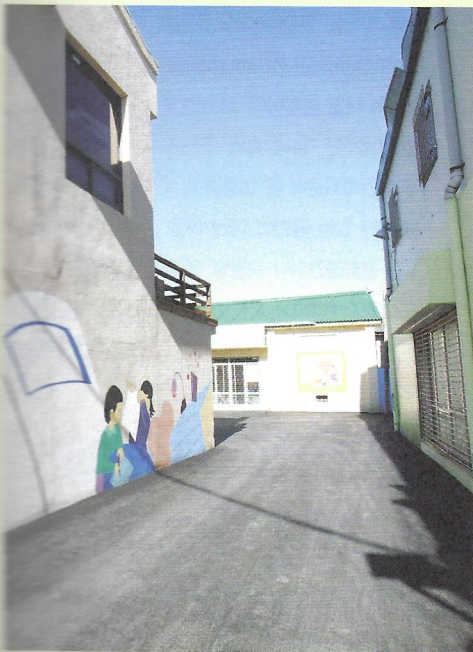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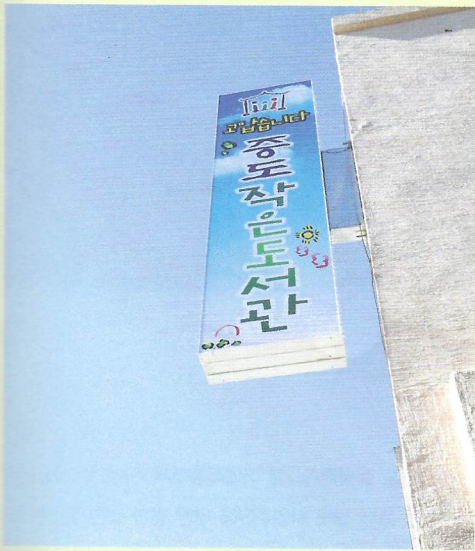


MBC 사장 최문순



지역 주민, 70세 이명석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란?

1차 1작은도서관 운동 국립중앙도서관, MBC 방송국, UNWTO ST-EP 재단과 함께 손을 잡고 전국에 작은도서관을 확대해 나가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1차 1작은도서관 운동 형식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전국의 읍·면·동 단위의 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나가려는 운동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관심을 가져 지난 10월 가나 지역의 2곳에 2개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문화지원 활동까지 겸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MBC 방송국, UNWTO ST-EP 재단 공동 협력사업(MOU)으로 추진
- 후원기업이 지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
- 역할 분담
 -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업 시행 지도 및 지원
 - MBC 방송국은 국내 캠페인 주최
 - UNWTO ST-EP 재단은 해외 지원 부문 담당

국내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1호인 중도 작은도서관 오픈, 그외 10곳 이상 조성 예정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의 1호 중도 작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신안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스텝재단과 국민은행이 도서를 기증함으로써 조성되었다. MBC 방송국으로 각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10군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STX가 3군데 작은도서관 지원을 약속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운영 주체가 되는 지자체의 자세이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성공 여부는 바로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후원기업이 원하는 지역과 장소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해외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가나의 작은도서관 조성 이후 탄자니아 등을 거점으로 확대 계획

해외 지원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UNWTO ST-EP재단은 지난 가나지역 작은도서관 건설에 이어 향후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등을 중심 거점으로 해서 해외 도서관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는 한국형 작은도서관 모델을 세계에 홍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작은도서관 지원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신청안내

www.imbc.com

02)780-2000(MBC 사회공헌팀)

Small Library NEWS

MBC 창사특집 특별 생방송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MBC 방송국은 11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 UNWTO ST-EP재단과 함께 하는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 특별 생방송을 방영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김성화 팀장,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정진식 이사장, 책임은엄마책읽는아이도서관 김소희 관장 등이 패널로 출연했으며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을 연결하여 생생한 현장을 보여 주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주도적 역할을 자처해온 MBC는 이번 생방송을 통해 우리 삶의 희망 발전소인 '작은도서관'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으며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오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운동', 12월 워크숍 열어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개관으로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른 '1사 1작은도서관 운동'과 관련하여 오는 12월 1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1사 1작은도서관

운동 워크숍)이 개최된다.

국립중앙도서관, MBC, UNWTO ST-EP 재단 관계자, 16개 시도 작은도서관 담당자, 작은도서관 관련 민간자원활동가 등 40명 내외의 관련자들이 참석한다.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의 홍보전략, 참여확산 방안, 민관 파트너십,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전략 등의 분야별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의 실질적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07 작은도서관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된 결과에 대한 성과 발표 및 토론회를 12월 6일에서 7일 양일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연구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발표회는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관계자, 민간 운동가, 전국 도서관 사서, 관련학계 교수 및 연구자 등 약 200명의 관련자가 참여하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은 2008년 작은도서관진흥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2007년의 연찬회 총결산, '작은도서관 연찬회 평가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은 올해 5개 권역별 순회 연찬회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12월

14일, 올림픽파크텔 아네테홀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올해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 토론회 및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안군, 작은도서관 2010년까지 12개소 건립

신안군이 작은도서관 건립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30일 신안군은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동네 속의 작은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도 작은도서관 개관에 힘입은 것으로 이제 전남 신안군 읍면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신안군은 올해 내로 암태면 주민자치센터 2층을 리모델링한 징검다리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내년에는 하의, 도초, 안좌면 등에 3개소, 2009년에도 3개소, 2010년 4개소 등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작은도서관 12개소를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네 속의 '작은도서관'은 마을회관이나 주민복지센터 등 마을공동 시설물을 이용해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이나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 압해면에 소재한 신안군립도서관은 총 220석의 열람석에 4만 3,56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2007 전국의 문고통계와 현황」 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이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 의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문고현황에 대해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2007 전국의 문고통계와 현황」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2006년 기준 전국의 등록문고 및 관련 단체에 대한 현황을 통계편과 명부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100부 정도를 발간하여 12월 14일 경 배포한다. 문고현황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의 온라인지도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네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작은도서관 짓는다**

NHN(대표 최휘영)의 검색 포털 네이버(www.naver.com)가 2008년까지 총 80개의 마을도서관 개설을 지원하고 전국 각지에 총 25만 권 이상의 도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마을도서관 개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토산초등학교에 42번째 네이버 마을 도서

관을 개관한 바 있다.

네이버는 2005년 11월부터 책 읽는 문화 확산을 통한 바람직한 지식사회 구현을 위해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함께 도서관·서점 등 문화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전국 산간 지역의 초등학교에 2,500~3,0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이를 개방해 마을도서관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할인점 매장 안에 작은도서관 오픈

대구 수성구에서 지역할인점 매장 내에 작은도서관을 오픈했다. 대구 수성구 고산1동 이마트 매장 안에 들어선 '고산어린이도서관'이 그것.

고산어린이도서관은 수성구청이 지난 7월 (주)이마트와 도서관 설치 공간 무상제공, 공공요금지원 등에 관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개월간의 내부공사와 도서관 입점 절차를 거쳐 10일 개관하게 된 것이다. 사업비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7000만 원으로 내부공사를 마쳤다. 전체 규모가 317㎡로 1만2,000여 권에 달하는 도서를 구비한 도서실과 50석 규모의 열람실, 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산어린이도서관은 지역할인점 매장 내에 있는 도서관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 산촌의 폐교들에 작은도서관을

기획예산처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학교 건물이나 동주민센터를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주민소득 증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폐교의 경우 그동안 3,016개 학교가 문을 닫은 후에 민간에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등 적절히 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559개교는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는 그동안 274개가 통폐합됐고 140여 개가 새로 합해질 전망이다. 주로 서울과 광역시에서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자체업무평가 시에 좋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흥시, 작은도서관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

11월 28일 오전 웅진씽크빅 인천사업단(본부장 추성욱)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상당한 분량의 도서를 기증하여 훈훈한 연말을 만들고 있다. 즉 웅진씽크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시흥시에 아동용 도서 약 1,000권을 기증한 것.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도서관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증된 도서는 시흥 시내 22곳의 작은도서관에 배부될 예정이며 지역 내 어린이들은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그 책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작은도서관의 관계자는 새 책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벌써부터 기뻐한다며 기업의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내가 논술학원의 등록을 포기한 이유”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고등학교 2학년인 나는 요즘 날아갈 듯이 기쁘다. 이런 기분이 시작된 것은 몇 달 전의 과학수업을 끝내고부터다. 그날 수업은 과학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이 함께 2층 중앙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진행했다. 교실 세 칸 크기의 도서관은 작년까지 교무실이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교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도서관은 24시간 냉난방이 가능해 늘 쾌적했다.

전에는 도서관이 5층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책도 많지 않았다. 3,000여 권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절반 이상은 ‘습니다’가 ‘읍니다’로 쓰여 있는 옛날 책이었다. 도서관은 점심시간에만 책을 대출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별로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달라졌다.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도서관으로 달려간다. 도서관의 책은 대부분 새 책인데 1만 권이 넘는다. 신간 잡지도 늘 40여 종씩 비치돼 있다. 오늘도 도서관의 만화코너에서는 1학년 아이들이 서로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빙긋 웃었다. 나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으니 말이다. 만화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안락의자가 비치된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는 바람에 다른 서가에 꽂힌 책들을 집었다 났다 하다가 딱히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 그냥 나오곤 했다.

도서관에서 열린 과학수업의 주제는 인간복제였다. 처음에는 <아일랜드>라는 영화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 영화를 부모님과 함께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영화를 본 친구들과 영화에서 나온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토론을 한 적도 있다.

사서 선생님 앞의 탁자에는 인간복제와 관련 있는 책들이 진열돼

있었다. 하필 선생님은 나를 지적하고는 “영수야! 인간복제 하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니?”라고 물으셨다.

나는 “인간복제가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지 궁금해요.”라고 대답했다. 사실 그랬다. 유전자 어찌고저찌고 하는 설명은 들었지만 잘 알 수가 없었고, 텔레비전에서 황우석박사가 개나 소를 복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늘 궁금했다.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다. 어떤 친구는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했고, 어떤 친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친구들이 이렇듯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나를 만한 말들이 모두 나온 다음에 두 선생님은 컬러 도판이 실린 책을 보여주며 인간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주셨다. 그때 나는 책 한 권을 잠깐씩 두었다. 『인간의 미래』란 책이었다. 선생님은 루게릭병의 치료법을 연구하다가 유전자 치료로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를 막아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법을 연구하다가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고도로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등 인간 육체의 결점을 보완하려는

“우리 가족 모두 작은도서관에서 자주 책을 빌린다. 때론 책에 대해 토론도 벌인다. 논술학원도 다닐 필요가 없다. 차라리 작은도서관에서 몇 권 더 빌려보는 게 낫다.”



Han Ki-Ho

■ 한기호는

1982년에 출판계에 편집자로 입문했으며, 창비에서 만15년 동안 영업자로 일한 바 있다. 1998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출판비평가로 활동했다. '학교도서관화운동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도 일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책 만들기>(2001), <한국 출판의 활로, 바로 이것이다>(2003), <열정시대>, <디지털 시대의 책의 행방>(이상 2006) 등의 저서와 다수의 공저가 있다.

과정에서 과학의 발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생명공학은 인간 그 자체를 복제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이 책은 그 발전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셨다.

솔직히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권하는 책은 무조건 읽고 싶지 않았다. 학기 초나 방학이 시작될 무렵에는 20여 권의 책 제목이 적힌 필독도서 목록이 늘 제시됐다. 그중에 몇 권은 꼭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읽으면서도 내가 왜 그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추천도서도 우리와 거의 비슷했다. 나는 읽던 책을 집어던지고는 인터넷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독후감 여러 개를 적당히 조합해 독후감을 제출하곤 했다. 조합을 잘 해서인지 높은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나는 선생님에게서 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일환이는 달랐다. 일환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단짝이었는데 작년에 부모님이 영국지사로 전근 가는 바람에 영국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일환이는 내게 자주 메일을 보내온다. 한번은 『The Guardians』란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과 많이 다뤘다는 이야기를 했다. 2050년의 미래를 그린 그 소설은 영국이 신시대 도시와 구시대 도시로 나뉜다는 상상 아래 나라를 가로지르는 장벽을 부수려는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란다. 일환이의 선생님은 늘 책을 자신의 관점에서 읽고 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라고 말한다고 했다. 책을 읽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주인공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환이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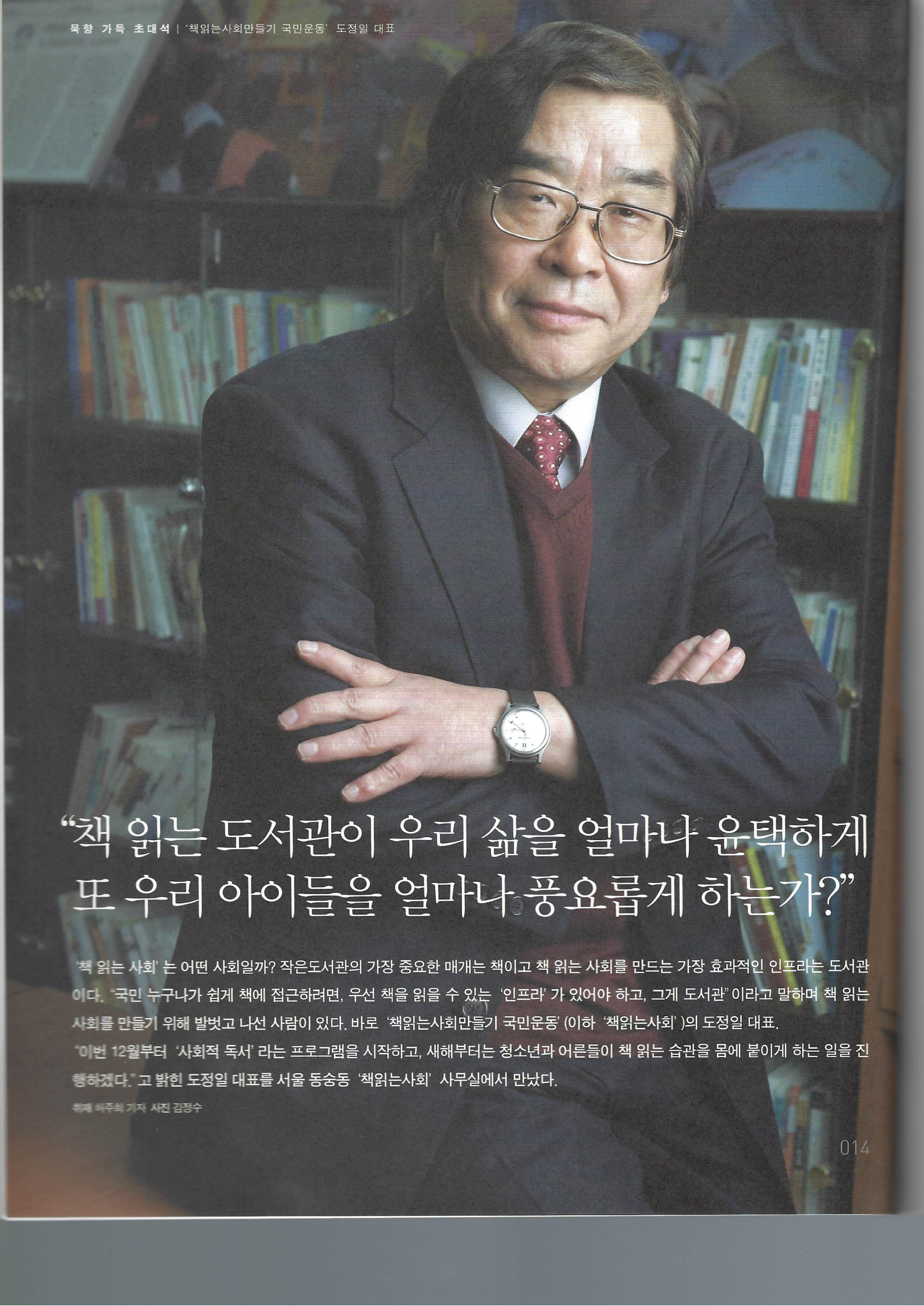
게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반대였다. 그래서 오랜 시간 논쟁을 벌였는데도 성적은 좋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환이가 매우 부러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일환이에게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기도 한다.

나는 요즘 나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다. 다른 과목의 도서관 수업도 차츰 늘어나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할 책의 목록은 늘어만 간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럴 때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솔직히 갈수록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편해진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얼떨떨해 하고 당황해 하셨지만 결국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니 말이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도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아버님은 회사 내의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어머니는 동사무소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주로 책을 빌린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너희 학교도서관에 이 책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 집에는 갈수록 책이 늘어간다. 온 식구가 서점에서 한 권 한 권 사들이다 보니 책을 꽂아둘 곳이 없어 지난번에는 아빠가 아예 책장을 몇 개 들여놓으셨다.

우리 집은 아무리 바빠도 주말이면 꼭 저녁식사를 함께 한다. 그런 날이면 늘 책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곤 한다. 나는 그 토론시간이 아주 즐겁다. 토론의 주제도 갈수록 다양해져서 논술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논술학원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 돈으로 차라리 책 몇 권을 더 빌려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일부는 실제 경험자의 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㉞



“책 읽는 도서관이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

‘책 읽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작은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매개는 책이고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인프라는 도서관이다. “국민 누구나가 쉽게 책에 접근하려면, 우선 책을 읽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그게 도서관”이라고 말하며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다. 바로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이하 ‘책읽는사회’)의 도정일 대표.

“이번 12월부터 ‘사회적 독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새해부터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책 읽는 습관을 몸에 붙이게 하는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도정일 대표를 서울 동송동 ‘책읽는사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특별 리포트 기자 사진 김정수

작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책을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국 북스타트 운동의 모태로 알려진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설립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8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1년 간의 준비 끝에 단체를 만드셨는데, 어떤 취지로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을 만드셨는지요?

개인들에게 '생각하는 삶'이 필요하다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사회, 성찰하는 인간, 깨어 있는 시민", 이것이 우리 단체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국민 누구나가 쉽게 책에 접근하자면 우선 책을 읽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죠. 그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전국 각지에 민간의 힘으로 작은 어린이도서관 짓는 일, 책 공급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 읽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책, 독서, 도서관 관련 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요구하는 일도 해왔어요.

'책읽는사회'는 그동안 도서관을 늘리기 위한 정책 제안, 대 국민 홍보,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독서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기적의 도서관 제1호관을 순천에 세웠을 때 젊은 엄마들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에게 책 사줄 돈이 없어 마음고생을 하던 엄마들이지요. 옥천 안남면에 '배바우도서관'이라는 주민 도서관을 지었을 때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 공부를 해서 편지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강원도 태백지구에 철암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해 준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긴 원기준 목사가 탄광촌 아이들을 돌보며 목회 활동을 해온 곳인데 도서관 짓는다니까,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으로 동전을 모았지요.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우리가 지은 도서관'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나설 줄 아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청소년 및 성인들도 점점 책을 멀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책 읽기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며,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자매체는 인간이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매체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고 연민의 정서, 상상력, 비판적 사고 같은 능력을 길러 주는 데는 문자매체를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책과 문자를 포기할 순 없지요.

책 읽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도서관 지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책 읽는 습관을 몸에 붙이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독서'라는 프로그램을 이번 12월부터 시작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책 하나를 골라 읽고 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화두로 끌어내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회에 선정된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고 화두는 '과학과 종교'입니다. 이 토론회는 대학교육에서도 학문 간 소통을 트는 다학문적 접근이나 이른바 '통섭'을 하는 데도 좀 기여하지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었는지요. 또 개인적으로 마음을 살찌게 한 책이나 감명 깊었던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전쟁 직후 책이 귀하던 시절에 자랐기 때문에 손에 들어오는 책이면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마산, 부산 등지를 피난지

로 떠돌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겨울날 헛간에서 병들어 앓다가 죽는 피난민, 길에 버려져 얼어 죽은 아기들 같은 '주검' 이 사방에 질펀했지요. 아프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글쎄, 이런 경험들이 문학 쪽으로 저를 이끈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영향은 있었겠죠? 중학생 때 읽은 책에 '산상수훈' 이란 것이 있었는데, 그

땐 무슨 소린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책 덕분에 "산상수훈이 뭐지?" "나자렛 예수가 뭘 한 사람이지?" 같은 질문들이 머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고 머리에 남는다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책, 질문, 문제들로 나중에 끊임없이 되돌아가게 되니까요.

책 읽는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노하우를 말씀해 주세요. 또 대표님의 책읽는 습관은 어떤 것인지요? 휴일 독서라든가, 짜투리 시간 이용이라든가, 좋아하시는 도서 분야라든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책은 종류에 따라 읽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몇 시간 집중해서 읽어야 할 책,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아무데서나 읽을 수 있는 책, 여행에 동반할 만한 책, 잠자기 15분 전에 읽을 책, 여러 가지죠. 언제나 주머니에 책 하나 넣고 다니는 일이 아주 유익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책 얘기를 화제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무슨 책 읽고 있지?" 그러면 서로의 관심이 드러나고 삶의 결이 보이면서 대화와 소통의 길이 열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인문사회과학과 문학 쪽 책을 주로 보지만, 요즘은 과학책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특히 생물학과 뇌과학 쪽 책들이 흥미진진합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23년간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다 지난 해 정년퇴임하시고, 현재 경희대 명예교수로 계신데 오랫동안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그동안의 감회

나 퇴임한 소감을 들려 주세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 왔는가, '교육받은 인간' 이랄 때 그 인간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는가, 퇴임할 무렵 이런 질문 때문에 많이 반성했어요. 그런데 교수에게 사실 '퇴임'이란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퇴임했지만 그렇다고 방안에만 박혀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활동이나 학문생활은 여전합니다. 더 바빠졌어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문학의 중요한 실천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작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미국 대선주자로 나와 있는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이 "작지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인터뷰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그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책 읽어 주고 이야기를 들려 주는 일이다." 젊은 정치인치고는 아주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최근 일맥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0회 일맥문화대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어떤 점에서 수상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수상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 그건 우리 단체에 줄 상이지, 개인에게 줄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양하다가 결국 '책 읽는 사회'가 받는다는 의미로 받게 되었어요.

'일맥'은 일맥문화재단 창립자의 아호입니다. '한 알의 보리'지요. 과분하게도 그간 우리 단체의 작은 노력에 대해 한 알의 보리같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해준 것 같아요. 고맙게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우리나라 작은도서관 방향에 대한 제안을 말씀해 주세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도서관을 많이 짓는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고 화려한 일에만 너무 쏠리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강통사회'를 면하자면 탄탄하게 기본이 선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발전의 밑거름을 만드는 일은 생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서관 하나가 지역 주민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가, 아이들 키우는 데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이란 도처에 도서관이 있는 나라입니다. 국회는 도서관과 독서 관련 예산이라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기본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그보다 더 알찬 일이 없어요.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서재, 아이들 공부방, 육아 지원 시설, 사회 안전망 등 풀뿌리 민생을 돕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지요. 관이 운영하든, 민간이 하는 곳이든, 작은도서관에는 사회적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의 정책제안사업 시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지역 공공도서관 증설'과 '도서 콘텐츠 예산 확충' 정책 제안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이하 '책 읽는 사회')은 국민에게 평등한 정보, 지식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초래되는 심각한 접근기회의 불평등과 정보, 지식의 격차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제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정보 접근권과 기회의 평등화에 가장 긴요한 기반 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증설하고 도서 콘텐츠 예산을 확충하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에 지역 공공도서관들을 대폭 증설하고 콘텐츠 예산을 늘리며 운영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어린이 공공도서관'을 짓도록 관계 당국, 민간업체, 지자체 등에 제안하고 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의 간사는 "말 그대로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 및 전국 자치단체들에게 정책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사업, 독서문화 진흥사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는 특히 민간 부문의 자원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각지에 소규모 도서관을 지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문의 :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02-3675-8783 / www.bookreader.or.kr)

농어촌 문화 소외지역에 큰 파급 효과

주민들 삶의 질 ‘업그레이드’ 되고 지자체 관심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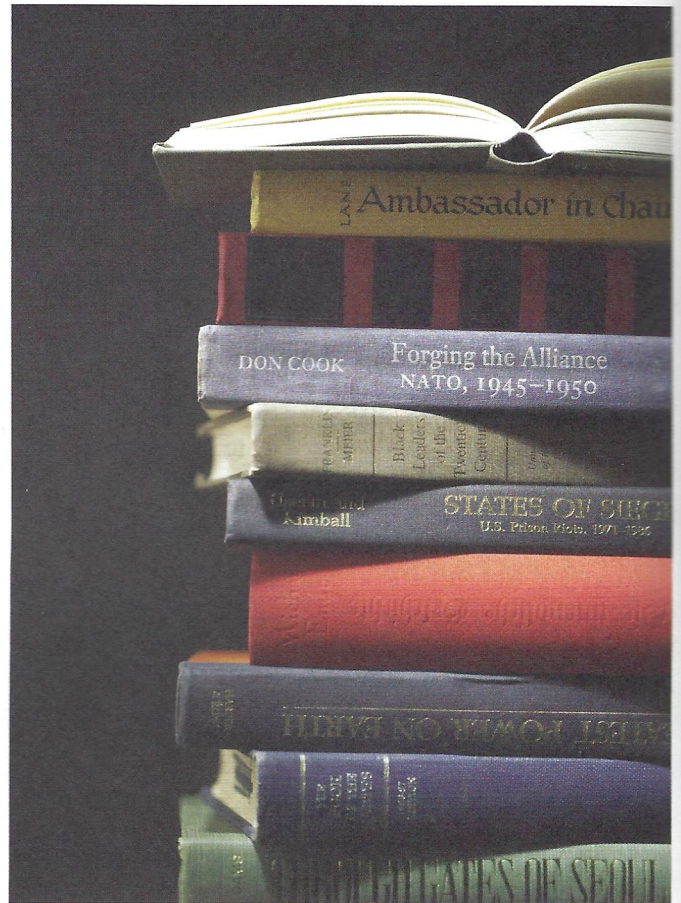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의 성적표가 드디어 공개됐다.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전문연구기관에 맡겼던 평가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2006년 정부지원을 받은 전국의 58개 도서관은 1년 만에 무엇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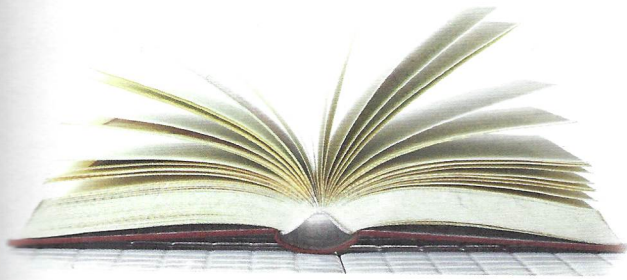
글 서유상 기자 자료협조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 (사)문화사회연구소

열악한 문화 소외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2006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시범적으로 전국 58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리모델링 및 건립비와 콘텐츠를 지원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정보·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부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한 지자체와 기업,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업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당시 50여억 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을 예산으로 투입했다.

1년여가 흐른 지금,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방향이 도출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의 류흥기 담당관은 “현지 실사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조성 실태,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평가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성지원사업 평가는 (사)문화사회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각종 문헌조사, 설문, 인터뷰 등 58개 도서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토대로 진행했다.

사업평가를 총괄한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1년이 지난 지금 문화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 격차 해소와 독서 문화 제고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70명... 100명 넘는 곳도 많아

이번 평가보고서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설문조사 내용은 비록 58개소에 한정되긴 했지만 작은도서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작은도서관은 외형적인 면에서 아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서가 없는 곳의 비율은 75%에 달했으며 29%의 작은도서관이 "보유한 장서가 4,000권을 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자료구입비 항목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공립 작은도서관과 일부 활성화된 민영 작은도서관 등 전체 33%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을 도서관구입비에 쓰고 있는 반면, "2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도서관도 35%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수가 70명 정도이며 "100명이 넘는다."는 답변도 10건 넘게 확인됐다. 대출 권수도 하루 평균 80권이 넘었고 200권 이상이라는 답변도 상당했다. 이는 도서관구입비 확보가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중요한 조건임을 말해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운영주체들은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도서열람, 대출 등 정보서비스 제공이 29%,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가 21% 정도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의 인기 프로그램으로는 '구연동화/(영어)동화책 읽어주기', '영화 상영', '어학 및 논술, 한자 등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독서모임' 등이 손꼽혔다.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진행비 부족' (30%),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부족'과 '협소한 공간' (각각 20%), '이용자들의 참여 부족' (18%)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한 이대희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원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공간의 문제는 지역 주민, 문화의 집이나 주민센터 등과의 연계로 풀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작은도서관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별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고 대답한 곳이 34%에 달했다. 이는 설립지원금 이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 1위가 모두 '운영자금 지원'이라고 답변한 데에도 잘 드러난다. 여전히 예산문제가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역의 전문가들, '주민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시켜야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가져야 할 전망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시설 측면을 살펴보자. 도서관의 상당수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휠체어, 유모차의 접근이 힘든 2층 이상, 복도 끝 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핵심인 만큼 1층 주출입구나 폐주민자치센터, 폐파출소 등 유휴건물 전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충분한 양의 장서를 구비하고 지속적으로 신간을 채워 높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평균 4,000권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도서관구입 예산 확보와 함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대차나 단체대출 등의 형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조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손으로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애정이야말로 작은도서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참여와 체험이라는 문화 활동의 최고 단계를 대중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문화민주주의 구현 및 문화자치의 디딤돌'이라 부를 만하다. 여기서 기본이 바로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인력은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이거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 행정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급기관의 지원 및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성평가사업으로 본

“잘 나가는 작은도서관은 무엇이 다른가?”

1.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첫째다

폐주민자치센터나 폐파출소 등 유휴건물 이용도 생각해보자.

2. 설립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최고다

‘우리손으로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애정과 자부심이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3. 상급기관, 지자체의 마인드를 바꿔라

사서교육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

4. 우리 주변의 전문가를 찾아라

지역 주민들 중 전문가를 찾아내 주민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시켜라.

5. 자원봉사자들과 든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라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고,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스스로 관리하게 하라

6. 정부의 예산지원이 지자체를 움직인다

중앙정부가 움직여야 지자체의 마인드가 바뀐다. 표준화된 재정마련 가이드를 개발하라.

7.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라

상호대차시스템 등 작은도서관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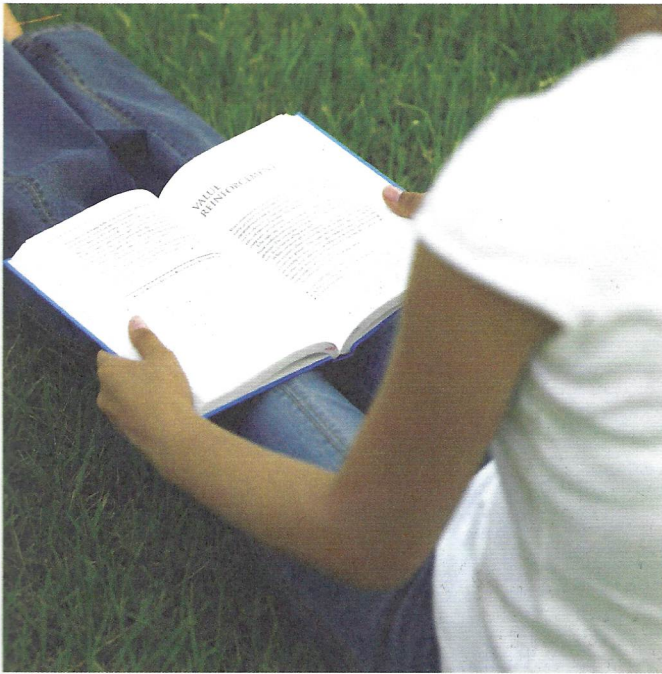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을 단순한 도서업무의 연장선 속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라보고 이에 맞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희 연구원은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운영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서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체는 지금까지 사서와 관장, 입주기관 등이 중심을 이루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주민운영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지역의 다양한 문화단체 및 문화기관과의 상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수 있으며 기획단계부터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보고서는 주부, 학생 등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재정 확보에 달려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물론 작은도서관들은 주민 후원회를 조직해 후원을 받고, 사회복지기금의 지원, 민간 기업의 지원, 지역 유지의 지원 등 재원마련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대전의 경우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구성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내년에 7개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이며 용인의 느티나무 도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단을 설립해 운영비를 확충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재정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06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 정부의 지원은 많은 지자체들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대희 연구원은 “정부의 지원은 곧 지자체 차원에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작은도서관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를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야말로 ‘상호대차시스



템'으로 대표되는 도서관 네트워크이다. 지역 주민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보다 규모가 큰 도서관의 장서 및 자료를 대어 반납할 수 있게 될 때 작은도서관의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따라 상호대차시스템이 지원된 순천의 경우를 살펴보자. 순천 시립중앙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5곳이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연결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및 농촌마을 등 순천 곳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들이 장서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물론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호대차시스템의 구축과 장기적 운용에 따른 재원 마련 및 각 지역의 상황을 염두에 둔 차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자체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 28%, 도농복합 지역 19%, 도시지역 49%로 소득 구분에서도 중류층 및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지원이 95%를 차지해 '문화소의지역을 위한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했다. 특히 농어촌 문화소의 지역에서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문화의 불모지' 와도 같았던 농어촌에 단순한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한 축이었던 리모델링비 지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실사 결과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도서관들은 리모델링 후 이용자의 증가, 이용자 만족도의 증가, 주민 소모임의 확대, 주민 관심의 증가, 주민 자원봉사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자금이 가장 많은 도서관 신축이야말로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충북 옥천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의 경우 아이들의 독서 공간과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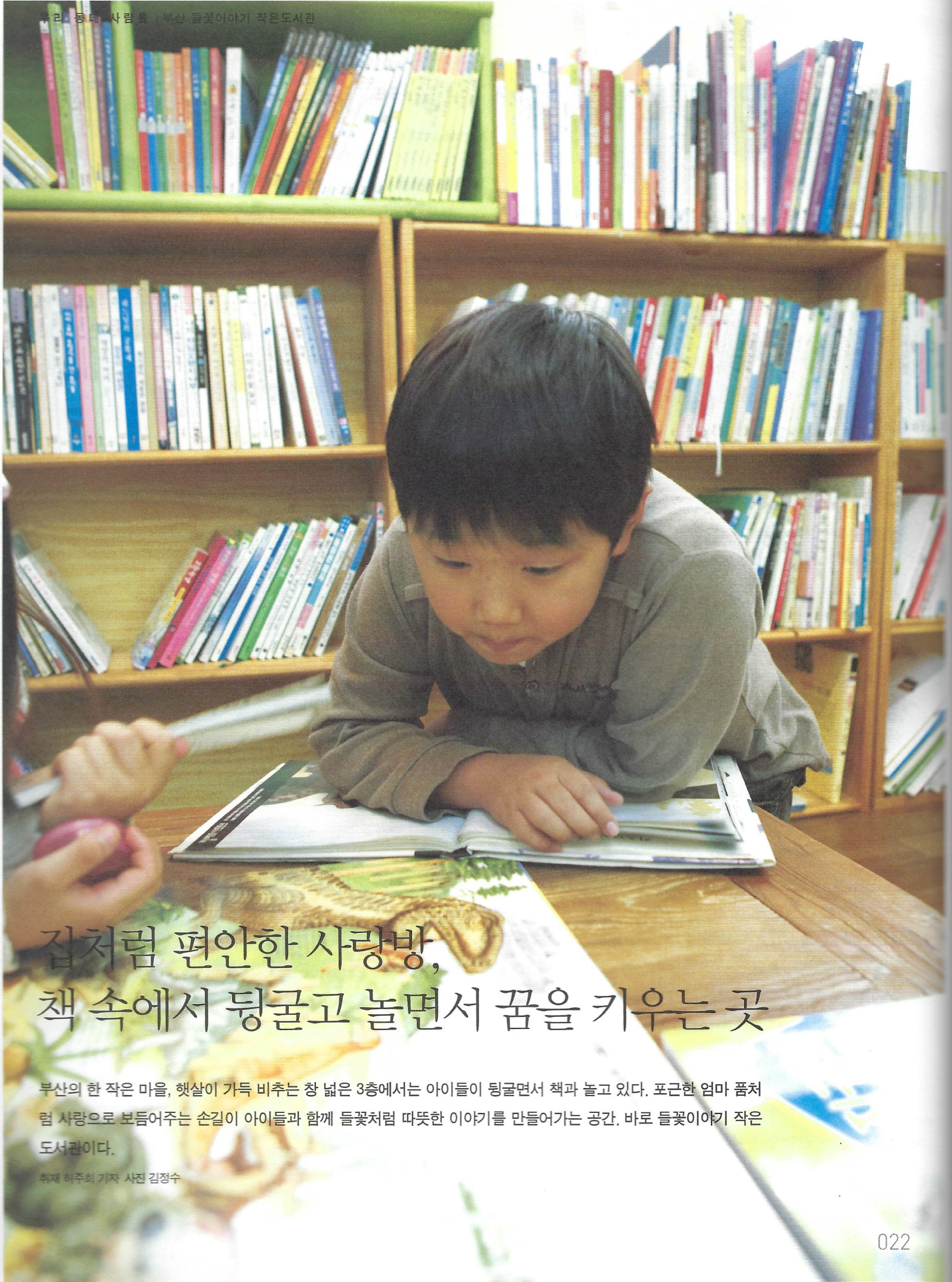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2006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선정 당시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지자체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뀐 사례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리모델링을 거친 작은도서관의 실내 구성이 다소 획일적인 점, 주민들의 무관심 등이 문제로 파악되기도 했다. 공무원의 업무 중복 및 사서직원의 미배치로 인한 비전문성이 두드러지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인력 확보, 엄격한 심사에 의한 시설 기준 마련, 운영 매뉴얼 개발,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평가보고서를 장기적인 작은도서관 활성화 매뉴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류흥기 담당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확인된 우수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구체화 되는대로 평가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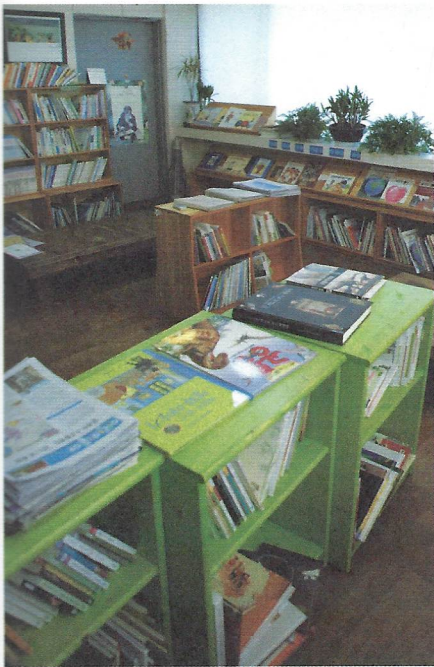
이번 평가는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발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계기였다. 2006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은 아름다운 희망, 그 자체였다. 



집처럼 편안한 사랑방, 책 속에서 뒹굴고 놀면서 꿈을 키우는 곳

부산의 한 작은 마을, 햇살이 가득 비추는 창 넓은 3층에서는 아이들이 뒹굴면서 책과 놀고 있다. 포근한 엄마 품처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손길이 아이들과 함께 들꽃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 바로 들꽃이야기 작은 도서관이다.

취재 허주희 기자 사진 김정수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좋은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창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웃과 책을 통해 함께 정을 나누고 정보도 교류하는 작은도서관

일반적으로 집을 가리켜 '삶의 보금자리'라고 한다. 내 몸을 편히 쉬게 하는 따뜻한 안식처이자 사랑의 보금자리.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은 이곳 아이들에게 집처럼 편안한 사랑방 같은 곳이다. 바닷바람이 부는 '못골시장'이라는 정겨움이 물씬 풍기는 재래시장을 지나 작은 건물 3층에 자리한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과 만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공간으로 한 낮의 햇살이 가득 비치고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아이들은 아직 없다. 막 청소를 마친 김숙 관장이 서울에서 온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다. 김숙 관장은 "차를 참 좋아한다."고 하면서 멕시코산 차를 타서 건네준다. 문득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차의 향기가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 대명동은 부산에서 저층으로 지어

진 집들이 용기종기 모인 작은 지역으로, 맛별이 가정이 많지만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고 공부에 대해 열심인 곳이죠."

오후가 되니, 아이들이 하나 둘씩 도서관으로 들어온다.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으로 들어온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진다.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책장에서 책을 뽑아들며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읽기 시작한다.

"우리 동네에 이런 책 읽는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엄마랑 시장에 왔다가도 생각나면 들르기도 해요. 엄마랑 같이 책 읽어요. 또 봉어빵을 사다가 엄마랑 관장님과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요. 여기에 오면 제가 읽고 싶은 책들도 많고 우리 집처럼 편안해서 좋아요."

문턱을 낮게 만들어 언제든지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2007년 겨울, 들꽃이야기는 벌써 11년째 꾸려오고 있는 책 읽는 공간이다. 1996

년 12월, 책으로 꾸며진 거실을 동네 아이들에게 오픈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30명 규모의 독립 공간으로 성장해 있다. 김숙 관장의 거실을 동네 아이들에게 오픈하면서 시작했다가 건물 2층 15평의 아담한 공간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바로 위층의 30평 공간으로 넓혀서 이사를 했다.

그림책, 동화책, 생각하는 책들, 백과사전, 어른들이 읽는 책 등 손때 묻은 책에서부터 매월 새로 구입하는 새 책까지 다양한 책들이 아담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엄마 손을 잡고 들어 온 서너 살짜리 꼬마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아이들은 언제나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들고 있다. 어린이들이 읽을 책은 약 5,000권이며 가장 큰 주제별로 도서를 나누어 전시하고 있는데, 책꽂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서를 분류한다. 또한 매월 20여 권 이상씩 신간과 추천 도서 위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신간 구입은 각 출판사에서 보내는 신간 소개와 신문의 신간 소개 등을 참고하며 후원



책은 인생에 있어 가장 귀중한 펠트입니다. 우리를 펠트로
세계로 이끌어 주는 끈이 바로 작은도서관입니다.

회에서 함께 상의해서 선정하고 있다.

“연령과 책 읽는 능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그림책을 읽어도 되고, 저학년이 글자만 있는 책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각자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들꽃 같은 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공간으로

들꽃이야기는 단순히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주제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주제가 있는 책읽기 교실, 글쓰기교실, 영어동화읽기 교실, 문화체험교실과 역사체험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방학이면 1박 2일로 도서관에서 잠을 자면서 공동체 생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의 운영 노하우 5

1. 지역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 유지

학부모들이 상담을 원할 때 아이의 교육 등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동네 책 잔치' 행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매년 '우리동네 책 잔치' 행사를 열고 있으며 작가 초대, 그림책 원화 전시, 북아트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

3. 책을 친구로 여기며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고, 그림책을 읽어도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책을 진정한 친구로 느끼게 한다.

4. 아이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아이들마다 각자가 가진 장점을 끄집어내게 하여 스스로가 멋진 아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5. 학부모 교육과 모임 활성화

매월 '아이 책 읽는 엄마 모임'을 갖는 등 부모님과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한다.



미니 인터뷰 | 김숙 관장

**“사서는,
이용자들이 책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평생 책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이고, 그 가운데서도 초등 3, 4, 5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는 아이들이 사회성에 눈 뜨면서, 또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이다. 이때를 놓치면 책과 멀어지고 책을 보더라도 만화책이거나 실용서, 처세술 정도에 그치게 된다. 그래서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서는 우선 책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만한 책들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책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가장 적합한 책을 권해야 비로소 이용자들은 책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기도 하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사서는 또한 이용자들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 받고 상처받고 아파한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이 조그만 애가 무엇을 알겠냐고 쉽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상처받는다. 비교 당하거나, 가족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아이들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사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이끌어 주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활을 체험하며 뽑내기 공연을 즐기는 등 캠프를 즐기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를 위한 ‘책과 친해지기’ 프로그램은 책과 친해지면서 동시에 좋은 책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책읽기를 통해서 편독을 방지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운다. 아이들은 “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면서 “두꺼운 책도 도전해 보고 싶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가 본 책을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책과 친해지기’와 달리 ‘책으로 세상읽기’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책이라는 창과 문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


보기도 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돕는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정하여 토론하고 비판하고 쟁점을 찾아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며 열린 사고와 균형감각을 가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일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안까지 찾게 된다.

들꽃이야기에서는 유행과 시류에 관계없이 기본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즉 인류의 보편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과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밖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밖 교실’은

더불어 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체험과 시설아동 자원봉사 활동, 환경 생태체험, 문화 역사체험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한다.

한편 김숙 관장에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없을까 물어보았다. 김숙 관장은 “다양한 주제의 신간을 마음껏 구입하고 싶은데 한계를 느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전에 한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적이 있어 무척 고마움을 느꼈지만 1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좋은 책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세상의 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길가에 피어있는 수많은 들꽃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듯이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들꽃 같은 향기를 전하는 작은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지역 작은도서관들 다 모여라!

동네마다 아이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람들의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이다. 그런데 하나의 작은도서관보다는 여러 도서관이 모이면 보다 효과적인 지역 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다. 2004년 '작은 어린이도서관'들이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의 나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의 활동이 그 예이다.

박소희 늘푸른어린이도서관장,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장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공동 자산이다

2007년 11월 인천 부평 산곡동에 위치한 청개구리어린이 도서관이 떠들썩하다.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서관 실

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간이다. 제2회 어린이도서관실무자학교가 매주 화요일마다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제는 '지역, 여성, 도서관'이다. 어떤 강의 내용이었는지 정리할 겸 분반을 나누어 토론을 하였다. 각 분반의 미션은 강의의 주제를 담은 '300자 리포트' 쓰기였다. 한 분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인천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한 모습

1조 공동 자산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우리 동네 어린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보고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사랑방의 역할과 공동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들은 지역의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의로 운영되고 있다. 작게는 소금, 깨, 고구마 등의 농산물의 직거래 장터로 활용도 하고 책읽기 모임이나 여러가지 강좌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는 등 사랑방의 역할을 잘 해 내고 있다. 이제 도서관이 지역 공동체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갈 때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도서관의 위치와 활동내용을 홍보한다.

둘째, 현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책읽기 모임이나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범위를 넓혀 한부모가정의 아동, 장애인, 보육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자산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가 언제나 내 집처럼 찾을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

발표의 내용을 듣다가 그만 소금, 깨, 고구마 등의 농산물의 직거래 장터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 웃음은 바로 공감의 웃음이었다. 작은도서관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가끔 다양한 물건을 팔아 재정에 도움을 얻기도 한다. 그런 서로의 모습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 낸 300자 리포트에는 그동안 작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담겼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 만들어 가야 할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중한 생각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더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 내 작은도서관이 함께 활동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

었던가?” “무엇이 나를 지금도 지탱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이번 어린이도서관실무자학교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었다.


2002년부터 어린이 책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으로 인천 지역에서도 동네마다 어린이도서관을 꿈꾸며 작은 어린이도서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서로의 모델이 되어 줄 어린이도서관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라 처음 시작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필요는 2004년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했던 것이다.

늘푸른, 짙둥이, 달팽이, 진달래, 신나는, 아롬드리, 품앗이, 청개구리.

아롬도 동네도 다른 어린이도서관들이지만 같은 마음은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게 하고 싶다는 것과 이 활동에 공감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었다.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여럿이 훨씬 큰 힘이 되었다. 지역에서 함께 ‘해들아 도서관 가자’ 라는 어린이도서관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회째 진행하고 있으며 ‘장수산지킴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역의 소중한 자연을 알아가고 보호하는 활동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사서학교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어린이 스스로 작은 어린이도서관의 주인으로 각 동네의 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자부심과 활동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 소속 도서관의 실무자와 자원활동가 서로에게 좋은 강좌는 강사와 내용을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가지며 도서관실무자 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듣기를 원하는 강좌들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기도 한다. 또한 북스타트사업을 인천 연수구와 부평에 도입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책 읽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부모들에게 필요한 부모 교육 사업을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다.

우리가 원하던 대로 동네마다 어린이들이 쉽게 찾아갈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간이 있고 책이 있고 책을 담을 서가만 있으면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일 것이다. 이미 경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98년 문을 연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이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수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이 공간을 거쳐 갔고 오늘도 어린이도서관의 문을 열고 책을 찾아오고 있다.

10년을 살고 다시 10년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인가 정리하고 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묵은 책들만큼 쌓여온 역사에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내용들이 다져져 새시대를 살아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어야겠다. 

(문의 : 늘푸른어린이도서관 T.032)818-1140 <http://cafe.daum.net/bookfor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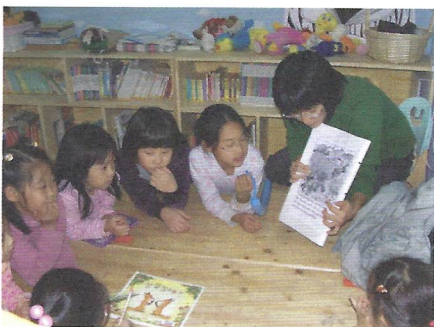


해들아 도서관 가자 활동



어린이사서 활동 모습

자원봉사자 없는 도서관은 진짜 도서관이 아니다



도서관을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만드는 자원봉사자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이 새마을 문고를 중심으로 한 경험(책 대출, 반납) 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운영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 도서관도 사정이 비슷하다. 또 다른 예로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스템과 역사를 갖은 미국이나 영국의 도서관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곳, 자원봉사 만능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꽃’이라 불러주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낼 수 있는 도서관 자원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도서관 일상 업무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이다. 대출 반납부터, 서가정리, 책 수선 같은 일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을 안내하는 역할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 봉사 중 가장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만 도서관에 대한 기본 이해가(분류와 책) 꼭 필요해 사전 교육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도서관 자원봉사 꽃피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으로 변해야

공유선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 관장

어느 학자는 “사서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자원봉사자 없는 도서관은 진짜 도서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자원봉사자들이 아말로 가장 열렬한 이용자이며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설 자리가 빈약해지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을 도서관의 꽃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함께크는우리 도서관이 상일동에서 문을 연 지는 이제 막 5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도서관은 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공간이다.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 풍납동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더 큰 가족을 만들어갔으며 우리들의 삶 속에 도서관이 있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는 늘 봉사라고 부르기엔 넘치는 나눔이 있었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나눠 먹고, 도서관 운영비를 달마다 후원하고, 책이나 옷은 물려 입히고, 유치원 대신 품앗이를 했으며 도서관을 청소할 때는 페인트칠부터 걸레질까지 모여서 같이 했다.

다음으로는 책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이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 책 읽어주기, 책 소개해 주기, 책 찾아주기, 이야기 들려주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이용자 중심의 봉사활동이다.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진행하는 자원봉사가 있다. 강좌나 문화행사를 위한 다과를 준비하거나 색종이 미술, 글쓰기...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강사가 되어 내용을 진행한다. 또 영화 상영이나 인형극 공연 등도 기획, 공연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자원봉사들이 있다. 지역 책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아동병원이나 시설들을 찾아가 책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 그림책 슬라이드 공연, 이동 도서관, 책 읽어주기 - 을 한다.

그 밖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도서관을 예로 살펴보자. 우리 도서관에는 ‘도깨비’ 엄마들 자원봉사 모임이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면 엄마들이 마실 와서 차도 마시며 책도 읽고 바느질도 한다. 가끔 동네 유치원 친구들이 단체로 놀러와 책을 읽고 간다. 그 때도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자의 입이 바쁜 시간이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바닥에 놓고 이동 책꽂이 위에 올라 앉아





책을 읽는다. 독서통장에 자기가 읽은 책을 빼곡히 적어나가는 손길이 예쁜 아이들도 있다. 늦은 오후엔 학년별로 독서 동아리 활동이 있단다. 이 시간도 자원봉사자가 진행한다.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간이다. 오후 6시 도서관 문 닫는 시간이 되면 무척 바쁘다. 여기저기 책상 위에 뒹굴고 있는 책들을 제자리에 꽂는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바빠진다. 아이들이 좀 더 문 닫는 시간을 늦춰 달라고 조른다. 화요일에는 문 닫는 시간에 맞춰 오카리나 강습이 있다. 도서관 가득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날은 도서관이 저녁 8시까지 문 여는 날이다. 이 시간도 자원봉사자가 수고해 주신다. 금요일 저녁 7시엔 격주로 금요극장이 열린다. 50여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웃음을 터트리며 영화를 본다. 금요극장 운영자도 자원봉사자이다.

‘도서관이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되는 것’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꽃이 될 수 있도록,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자는 사서일 수도 있고 오래 활동한 봉사자일 수도 있으며, 개인 도서관을 운영해 온 사람일 수도 있다. 어

우리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 풍납동 공간을 엄마들에게 맡기고 이사를 결정하면서 나는 처음 도서관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간직한 엄마들을 다시 만났다. 지금 상일동 도서관의 자원봉사 모임 ‘함께크는우리’ 엄마들이다.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진 엄마들, 그들과 6개월이 넘는 준비를 거쳐 ‘함께크는우리’는 상일동에 그 동지를 틀었다. 내가 가꾸어 온 작은 도서관 속엔 책 이름보다 함께 했던 엄마들 이름이 더 많이 들어 있다. 그들이 이름을 불러주어 우리 도서관이 되었으니까... 누구도 도서관이란 이름을 잘 쓰지 않던 시절, 우린 우릴 도서관이라 불렀다. 보잘 것 없는 작은 공간과 2,000권 남짓한 책에도 불구하고 ‘함께크는우리’가 그 어떤 크고 멋진 도서관보다 더 위대해 보였다. 이용자인 자신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도 도서관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주는 곳이었으니까 말이다.

자원봉사의 3대 원칙인 공익성, 무보수성, 자발성을 떠올려보면 도서관은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자발성을 살려 줄 수 있고 지속적인 활동 공간이 보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봉사는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단계인 노년을 고립과 좌절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 사람이든 자원봉사자를 조직,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 자세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다.

운영자가 자원봉사자들을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늘 지지 지원하며, 그들의 창조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과정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내 경험으로 그들의 자발성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전체의 성과보다는 봉사자 한 사람 하나의 성과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봉사자의 성과들이 도서관이 아닌 봉사자 한 명 한 명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대의적인 가치에 치중하면 사람의 소중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열린 운영으로 사람들의 주인의식을 높여 다양한 방식의 참여공간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도서관에는 무슨 일이 그리 많은지 자원봉사자들은 늘 바쁘다. 그러나 누구나 좋아서 한단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하단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도서관은 정말 사람 사는 재미와 맛이 느껴지는 일상의 공간이자 꿈과 희망을 주는 마법의 공간이 된다.(다음호에 계속)

문의 : 함께크는우리도서관 T.02)482-8394

작은도서관 교류 활성화 정책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하여 연계활동 강화

어린이도서관 운동과 독서문화 운동을 펼치며, 어린이도서관의 설립 및 협력교류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대표 이미경/국회의원)는 2007년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연합활동강화 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연합 활동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 간 교류 활성화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작은도서관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운영인력에 있어서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에서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전국의 작은도서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별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교류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의 이미경 대표는 "기존의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의 회원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다. 특히 부산 지역 등에서는 새로 운영자 모임이 결성되었고, 서울 도봉 지역 등에서는 그간에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협회가 활성화되기도 했다. 또한 익산 지역에서는 시립도서관과 연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단위별로 간담회, 워크숍 실시

먼저 전국의 20개 지역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10곳을 선정한 후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실시했다.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협회, 문고협회 등과 협력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모델과 발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자원봉사자 매뉴얼을 발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이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올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 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20여 개 지역에서 총 20여 회에 걸쳐 어린이책잔치를 개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동시에 지역의 각 공공 도서관, 회원, 등과 연계하여 책잔치를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의 지자체와 작은도서관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문의 :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02-388-5933

<http://cafe.daum.net/ilovei>)

독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월간 <작은도서관>이 되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의견 혹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나 생각을 담아 편지실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애정어린 비판과 충고가 더 나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TEL. 02-2277-6206 FAX. 02-2277-6202

발언대

Monitoring
3

큰 꽃 이야기에 오면
참 재미있어요!

양종현

양종현 부산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 이용자(부산 연포초등학교 3학년)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에 오면 참 즐거워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하고 생각하면 빨리 오고 싶어요. 도서관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들이 많이 있고요, 또 관장님과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관장님은 우리 엄마처럼 자상하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도서관이 우리 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여기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골라서 읽을 수 있고요, 누워서 책을 봐도 되고요, 참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제가 처음 작은도서관에 와본 것은 유치원 때였어요. 그때는 엄마랑 함께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저 혼자서도 잘 와요. 또 엄마와 동생이랑 함께 오기도 하고요. 엄마는 저희랑 책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책을 권해 주시기도 해요. 또 관장님과 엄마는 친구처럼 이야기도 나누시죠.


저는 학교가 끝나면 검도장 가기 전에 도서관에 오는데 어떨 때는 책 읽는 데 빠져서 검도장에 늦게 가기도 해요. 또 엄마가 집에 가자고 해도 좀 더 있고 싶어서 싫다고 할 때도 많아요.

예전에는 책 읽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작은도서관에 오기 시작하면서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책 읽는 일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처럼 여겨졌었는데 작은도서관에 와서 편안하게 책을 대하다 보니 책 읽는 일이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만화로 된 역사이야기와 과학책이에요. 제 꿈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인데요. 그래서 로봇에 관심이 많고 로봇 이야기가 있는 책을 즐겨 보고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글짓기 교실'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서 글을 잘 쓰는 법을 배우면서 실력도 늘어서 기뻐요. 또 책을 읽고 나서 제 생각을 쓰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책 한권을 정해서 관장님이랑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참 재미있어요. 저는 앞으로 책을 많이 읽어서 발표도 잘하고 글 쓰는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해서 친구들도 이제 이곳에 자주 오고 있답니다. 놀이터나 게임장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이제 우리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학교 교실에 서처럼 떠든다고 야단맞지 않아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이 지금처럼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제 꿈도 이곳에서 많이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파이팅!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드라마 "고맙습니다"의 주제가 되었던 아름다운 마을 중도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세워집니다.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마을에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지어드립니다.

희망을 나누어 주세요.

기업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마을에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지어드립니다.



02-780-2000

www.imbc.com